

고코쿠지 절 (興国寺)

고코쿠지 절은 일본 선불교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간장과 긴잔지 된장의 발상지로도 유명합니다. 이 사찰은 가마쿠라 막부(1185~1333년)의 3대째 쇼군 미나모토노 사네토모(1192~1219년)의 명복을 빌기 위해 1227년에 창건되었습니다. 고코쿠지 절에는 귀중한 불상과 문화재가 수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내에는 삼나무, 단풍나무, 철쭉, 벚꽃 등이 심어져 있어 사계절의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코쿠지 절 방문길

경내에는 남쪽의 다이몬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납작한 돌길이 숲으로 뒤덮인 부지를 지나 연못과 작은 석탑, 그 밖의 비석군을 지나 두 번째 문까지 이어집니다. 산문은 가람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법당(본당)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법당(본당)

‘법당’은 고코쿠지 절의 정신적인 중심입니다. 역사적인 부처, 석가모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천장에는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개산당

본당의 뒤쪽에서 명상 도장인 ‘선당’, 그리고 ‘개산당’으로 이어지는 회랑이 있습니다. 개산당은 고코쿠지 절의 주지를 지낸 고명한 선사인 신치 가쿠신(心地覺心, 1207~1298년)을 모시기 위해 장지 위에 세워졌습니다. 가쿠신은 일본에 선종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후, 가쿠신은 고다이고 천황(재위 1318~1339년)으로부터 호토 엔묘 국사(法燈円明国師, 완전히 깨어난 법등의 국사라는 의미)의 호가 추증되었습니다.

가쿠신의 공적

가쿠신은 중국의 무문혜개(1183~1260년) 밑에서 6년간의 수행을 마치고 귀국 후 주지로 부임했습니다. 무문이 저술한 『무문관』에 담긴 내용은 일본 선불교의 중심적인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가쿠신은 샤쿠하치(대나무로 만든 통소)의 악보와 함께 무문의 가르침 등을 중국에서 가져왔습니다. 명상 수단으로 샤쿠하치의 연주를 소개하고, 허무승(‘허무의 성직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음)이 실천하는 문화적 관습을 확립했습니다. 허무승은 승려나 탁발승으로, 이들 대부분은 바구니를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의 머리부터 목까지 덮는 갈대로 짠 삿갓을 쓰고, 샤쿠하치를 불며 순례했습니다. 이 독특한 쓰개는 자아의 부재를 상징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샤쿠하치를 연주했습니다.

가쿠신은 중국에서 배운 발효 기술을 일본으로 가져와 긴잔지 된장을 제조했습니다. 이 소박한 된장은 야채, 쌀, 콩, 보리를 혼합하여 발효시킨 것으로 밥에 얹기도 하고,

생선구이나 생선회에 곁들이거나, 술안주로 만드는 등 조미료가 아니라 반찬으로 먹습니다. 가쿠신은 긴잔지 된장뿐만 아니라 일본 간장의 아버지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된장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발효통 바닥에 국물이 고입니다. 가쿠신은 그 국물을 맛보고, 향기로운 풍미에 반하여 추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간장 제조의 길이 열렸습니다.

더 알아보기

경내를 산책하면서 ‘법당’, 명상 장소인 ‘선당’, 가쿠신을 모신 ‘개산당’의 외관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이 불당들은 평소 일반에 공개되지 않지만 정면 문의 판자 틈새로 본당 내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경내를 도는 오솔길 중간에 ‘텐구도’가 있으며, 참배자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불당 내에 전시된 거대한 텐구의 가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텐구는 붉은 얼굴과 큰 코가 특징인 요괴로 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만화와 문학에 등장합니다. 전소된 고코쿠지 절의 가람을 전능한 텐구가 하룻밤 사이에 재건했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텐구는 이 절에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찰의 기원과 발전

고코쿠지 절은 당초 밀교 진언종에 속하는 사이호지 절로 건립되었습니다. 1258 년 가쿠신이 주지로 취임하며 선종 임제종으로 개종했습니다. 남북조 시대(1336~1392 년)에 고무라카미 천황으로부터 ‘고코쿠지 절’이라는 사호를 받아 사이호지 절에서 고코쿠지 절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흥했습니다. 이 변혁은 교토를 거점으로 하는 천황으로부터 가마쿠라를 거점으로 하는 무사라는 새로운 지배 계급으로 정치적 권위가 이양되는 일본 역사상 중요한 과도기에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일본 불교가 급속히 다양화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선종은 일본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종파였는데, 가마쿠라 막부의 비호를 받으며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가쿠신은 고코쿠지 절을 일본 내 유수의 선사로 발전시켰으며, 일본 전국에 신앙을 전파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3 세기에서 14 세기의 전성기에는 143 개 선사들의 정점을 찍었으며, 본당 경내에만 43 개의 말사가 있었습니다.